

# 튀김집이 아니네, 붓튀김 갤러리

‘붓튀김’ 작가 이언씨

담양 메타프로방스에 4월 문 열어

헵번 메모노트, 홀로그램 액자 등

아트 상품 판매도

“담양 자연과 인물 작품 만들 것”



담양 메타프로방스에 지난 4월 문을 연 ‘붓튀김 갤러리’ 내부 모습.



‘붓튀김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아트상품들.



붓튀김 기법으로 그린 ‘오드리 헵번’

이국적인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떠오르는 관광지이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식점, 카페 일색 상점들만 자리잡으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붓튀김 갤러리’도 이름만 들었을 땐 ‘새로운 분석집이 생겼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중앙분수 뒤편 귀퉁이에 위치한 이곳은 노란색벽 가운데에 양중맞은 입구가 자리잡고 있다. ‘튀김이나 먹어볼까’하고 입구를 들어서선 순간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 수 있다.

20평(66㎡) 남짓한 공간에는 하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벽을 따라 약 50호 크기 인물 초상화들이 걸려 있고 아기자기한 아트상품들이 진열돼있다.

대개 ‘만지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붙은 여느 갤러리와는 달리 ‘붓튀김 갤러리’에서는 ‘안 만져 보시면 후회합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벽에 걸린 작품을 살펴보니 일반 종이 소재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이다. ‘오드리 헵번’, ‘바스키아’ 등 외국 유명인부터 영화 ‘베트맨’ 속 악당 조커, 신사임당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까만 머리카락에는 무수한 흰색 물감들이 뿌려져 별처럼 빛나는 형상이다. 마치 홀로그램을 보는 듯 플라스틱 재질 겉면은 각도에 따라 반짝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갤러리 대표 이언(25·분명 이대연) 작가는 “‘붓튀김’은 ‘브러시 스프레이 일러스트레이션’을 한국어로 해석한 말로, 붓 2개를 사용해 물감을 튀기는 기법이다”며 “담양 메타프로방스와 작업 분위기가 어울려 이곳에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광주 출신 이 작가는 한국적 동양화에 서양 팝아트를 녹여낸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요철이 있는 한지에 먹으로 인물을 그린 후 ‘붓튀김’기법으로 별을 표현한다. 이때 별은 스타를 빛나게 해주는 별을 의미한다. 그후 컴퓨터로 보정작업을 한 다음 홀로그램 필름을 씌워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 옆으로 보이는 아트상품도 시선을 붙잡는다. 오드리 헵번이 그려진 메모노트, 홀로그램 액자, 컵받침, 파우치, 클리치백, 예코백, 거울 등 다양하다. 앤드워를 작품에 등장하는 캠벨스프 통조림통에 심어진 선인장도 눈길을 끈다. 가격대는 1000원부터 수십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언작가의 아트상품들은 서울 63빌딩 한화갤러리아, 신세계 명동점 등 면세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작업 중인 이언 작가.

이 작가는 “단순히 작품만 판매해서는 작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적극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 전문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가 아닌 그림으로 돈을 벌어 보자’고 결심했다. 작품과 컨셉이 맞는 시내 웨딩샵에 작품을 그려주고 대가를 받으며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무작정 방문했던 초기엔 10군데 중 7군데에서 거절 당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지며 찾는 곳이 늘어났다. 젊은 세대답게 SNS를 적극 활용한 게 주효했다. 5개였던 추천클릭 수는 100개, 200개..., 1000개로 늘어났고, 지난 2013년에는 전주 한옥마을 지순갤러리 공동 창업 멤버로 스카우트됐다. 이때 한지 매력에 빠지며 지금의 작품세계 틀을 갖추게 된다.

이후 이탈리아 패션브랜드 ‘페수라(Fessura)’, 미국 ‘나이키’ 등과 협업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콘텐츠 업체 ‘피카캐스트’와 연계해 할리우드 배우 클로이 모레츠, 토마스 생스터 등에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와 협업전시도 진행했다.

이 작가는 앞으로 담양 자연과 인물을 ‘붓튀김’기법으로 그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붓이 어디로 튀길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 또한 어디로 튀지 모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담양에서 붓튀김 그림을 감상하며 한국 고유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326-81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이열치열... 열정의 프린지



13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타악그룹 열쑤의 ‘인수화풍’ 공연.



내일 금남로 5·18광장

‘열쑤’ 공연·댄스 무대...

8월 광주는 뜨겁다. 뜨거움은 곧 열정이다.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에 열리는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이 8월에는 ‘열정의 프린지’를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온다.

13일 오후 4~9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심장에 불을 질렀다’를 슬로건으로 버스킹 공연, 문화예술체험 등을 준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연은 오후 7시 타악그룹 ‘열쑤’가 펼치는 ‘인수화풍’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4월 공모한 ‘2016 아리랑브랜드공연’ 첫번째 무대

로, 10월3일에는 ‘아리랑을 찾아서 꿈속의 고향’(내룻소리민족예술단), 10월18일에는 ‘U(우)리랑’(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을 선보인다. ‘인수화풍’은 타악과 무용, 비보잉이 어우러져 물·불·바람 등 자연 소재를 신명나게 표현한다. 이외에도 남녀 혼성그룹 ‘트리플제이’, 댄스팀 ‘슈프림’, 청소년보컬그룹 ‘스텝’ 등이 무대에 올라 한여름 밤을 감성으로 적신다.

지난달 호응을 얻었던 돛자리파티도 준비했다. 선착순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00여개 돛자리·텐트가 분수대 주변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편하게 돛자리 위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기존 인기를 끌었던 관상체험, ‘이글루-얼음 부시기’도 진행한다. 또 나만의 고무신만들기, 화관만들기, 다육화분&부채꾸미기, ‘어벤져스 가면 만들기’ 등 직접 만들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만들기체험이 마련된다. 문의 062-224-03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대 ‘BK21 사업단’ 오늘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오는 12일(오후 2시) 인문대학 학술회의실(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역어 및 지역어 연구의 문화가치’를 주제로 개최될 이번 강연회의 초청강사는 중국 연변대학 한어인문학원장 김봉민 교수(사진)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난 목적어의 차이를 분석하고, 두 언어에 반영된 문화적 차이를 밝힐 예정이다.



김 교수는 중국 연변대학에서 현대 한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희대에서 국어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사 대조연구’ 등의 저서가 있으며,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편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부처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